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1.22.(수)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설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 감소 심각...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시급”
- 오세희 위원장 “비상계업 회복지원금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 기반 마련할 것”

2025년 1월 22일 (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2일(수) 부천시 역곡상상시장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임진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 이진태·서영석·김기표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남일우 부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역곡상상시장 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일우 부천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역세권 시장의 매출조차 20~30% 감소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예산 추경과 함께 지원 정책 발굴·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민생경제 예산 추경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인해 많은 상인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비상계엄 회복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입은 영업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천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태·서영석·김기표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은 “내수 침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관철시켜 내수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을 촉구하고, 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끝/.